

지역 매아리



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 운영회의 · 신규 위원 위촉

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정기 운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기존 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새롭게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신규 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양안용씨를 선출했다.

또 201년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및 민간협력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업 실시 결과 보고회도 가졌다.

이에 따르면 협의체는 올해 사례관리 대상자 12세대를 대상으로 270만원을 들여 물품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다. 또 민간협력 긴급 구호비로 10세대에 310만원, 주거취약계층 3세대에 집수리 비용 200만원도 지원했다.

협의체는 이외에도 올해 말까지 사례관리대상자 11세대에 540만원의 도배와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기자

고창군, 제설작업 간담회

고창군(군수 박우정) 아산면이 트랙터 운전자지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면사무소에서 제설작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아산면은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12월 첫째 주까지 장비 점검 및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설대책기간을 정하여 지역 내 22개 구역 124km 구간에 대해 트랙터 장비 22대를 활용하여 제설 작업을 시행한다.

특히, 겨울철 폭설시 주요 간선도로와 농촌마을 진입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제설계획을 수립했다.

이종연 아산면장은 "평소 제설작업에 적극참여 해준 제설요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며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합시 상황관리체계유지, 작업시 안전한 행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선양사업 중앙부처의 지원 필요

김생기시장, "정부의 책임감 있는 동학농민혁명선양 사업 추진이 사회혁신"



김생기 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제239차 정기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과 동학농민혁명정신 한법 전문포함 기념일 제정 등 난항을 겪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혁신의 출발입니다."

김생기 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제239차 정기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김시장은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명은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근대사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이념이자 세계사적으로도 의미있는 대규모 애국애족운동인만큼 선양사업을 통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중앙부처의 선양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장은 특히 "동학농민혁명특별법에 근거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전(前)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념공원조성사업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기념일 제정, 혁명정신 헌

법전문 포함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혁명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혁신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태용 기획예산과장이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끄는 지방자치 현장의 민선 6기 혁신 성공사

를 발표자로 나서 '지역청안대회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발표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제대법인 희망제작소와 민선 6기 국민관람권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정음=김대환기자

최적의 환경조건 고품질 딸기 재배

고창딸기 본격 출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청정한 자연 생태환경 속에 고품질 딸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고품질 딸기를 재배하여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

고창군은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하여 1년 과정의 농촌개발대학 딸기파를 편성 재배기술교육과 전문컨설턴트와 함께 현장방문 컨설팅을 추진했다.

고창딸기는 9월 중순에 정식한 실황

품종으로 당도가 13브릭스 이상이며, 개당 30g이상의 크기로 소비자에게 각광 받고 있다.

고창딸기는 도매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아 11월 말 기준 19,000~20,000원/kg의 높은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다.

고창딸기연구회에서 생산·출하한 딸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답수 녹조류인 클로렐라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딸기로 다른 딸기에 비해 경도가 높고 당도 또한 11x 이상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고창군은 8ha에 20여호가 딸기 농사

를 짓고 있으며 귀농인들을 비롯해 젊은 농업인들에게 호응도가 높아 재배면적 또한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정 군수는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군은 토질이 좋고 농민들 또한 재배기술과 품질 연구 등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복분자와 수박, 멜론 등 명품 농특산물이 풍부한 고창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딸기 또한 고창의 명품 농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최고품질 과제생산을 위해 딸기농가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축산분야 시범사업 평가회 · 한우 사양기술 교육 진행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일 축산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된 축산분야 시범사업 평가회와 함께 한우 사양기술 교육을 가졌다.

관련해 기술센터는 올해 5억3000만 원을 들여 스파트판 축산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 등 7개 시범사업

을 추진했다. 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정읍축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평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에는 축산농가에 대한 신기술 보급 일환으로 ICT 활용 가축

질병과 축사 재해 예방시스템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한우유종계량 협회 정용호 부장이 한우 사육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방안 등을 설명, 호응을 얻었다.

/정음=김대환기자

안전한 겨울나기 준비 발벗고 나서

부안군 하서면, 제설작업 봉사단 봉사자 간담회

부안군 하서면이 폭설이 잦은 관내 지역도로와 마을 인길 눈 치우기 등 제설에 작업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하서면은 지난달 30일 하서면 제설작업 봉사단 봉사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눈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봉사단은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기간으로 정하고 4개 마을에 대해 개인 트랙터 18대와 연화칼슘 등을 활용한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트랙터에 제설장비 부착 및 장비 점검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다짐했다.

특히 하서면은 봉사자들이 제설 작업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봉사자 안전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문숙자 하서면장은 "평소 제설작업에 참여해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안전한 제설작업을 부탁드린다"며 "눈 치우기 운동을 통한 더 행복한 하서면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하서지역 자율방재단원들이 대부분 봉사단에 참여해 겨울철 뿐만 아니라 사계절 하서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들이 많아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1일 임시로 문을 열었다.

보건소 내 2층에 마련된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곳이다.

공간 확보와 함께 5명의 전문 인력도 확보했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앞으로 치매 관련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무료선별검사를 실시하고, 1:1 사례관리와 함께 치매단기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카페 운영을 비롯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형 치매예방 종합서

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치매환자·고위험군·정신군 가족 등을 등록관리, 대상별로 맞춤형 체계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 12월 정식개소 할 때까지 이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이에 따른 임시 사무실 마련과 운영에 따른 사업비 16억 4889만여원은 국비 80%를 지원받고 시비 20%를 더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에 총 29억원을 들여 금봉동 일원 4822㎡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한다. 내년 1월 설계용역에 들어가며 12월 지상 2층, 100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정음=김대환기자

고창경찰서,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 청문갑사실에서는 강력범죄 및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거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숙소시설과 협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상시 임시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2차 범죄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모양지구대 김경민 순경은 "심야시간 가정폭력 출동 나가면 가해자 피

해자를 분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임시숙소 제공 제도가 있어 잘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박헌수 서장은 "사건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사건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시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관련 부서가 모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